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힘 모은다 두릅 농가 든든한 울타리 생겼다

남원시, 영호남 지역정치권·단체장 대거 참석... 설립 위한 국회 대토론회 13일 개최

남원시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박희승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영호남 공동기획 '제2중앙경찰학교(이하 학교)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동행의원, 전북 연고 국회의원, 김관영 전북지사, 최경식 남원시장 등 영호남 주민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는 국민의힘 대구·광주시당 및 경북·경남·전남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남·부산도당과 국민의힘 영호남 동행의원, 영호남 경찰직장협의회 등이 후원하고 영호남 지역정치권과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학교 남원 유치에 힘을 보태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인 영호남 협치와 동서 화합의 상징이 될 것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분위기 확산을 전망하고 있으며, 장일식 자치경찰발전전문위원 부원장이 발제자로, '미래 치안 환경변화에 따른 학교의 필요성 및 역할'이란 주제로



남원시는 오는 13일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포문을 열고, 이어 주재별 패널 토론에 나서며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찰 미래인재양성 및 역량강화 시급성) △김창훈 경남대 교수(급변하는 치안환경 대응을 위한 경찰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한정민 전북경찰직장협의회 국장(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치안환경

변화대응) △김경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제2중앙경찰학교 미래 경찰 양성 교육시스템 구축방향) △김시백 전북연구원 박사(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에 고려할 비용편익분석) 등이 패널로 나서, 다섯 가지의 주제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학교 설립은 미래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자, 국토 균형발전과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학교를 남원에 설립해 비수도권 지역인 영호남 남부권 지역은 남원에서 교육받고, 수도권은 총주의 중앙경찰학교에서 받는 것이 균형발전과 교육생들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남원 설립 예정부지가 100% 유류 국유지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부합하고 예산 절감 효과 및 부지개발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원이 학교의 최적지인 만큼 유치의 당위성과 교육차원에서의 원활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

순창군이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두릅을 위한 획기적인 보험 정책을 선보였다.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간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두릅 농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청정 산지에서 재배되는 순창 두릅은 그 독특한 향과 뛰어난 식감으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매년 불철이던 전국 각지로 유통되며 지역 농가의 든든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자연재해에 취약한 두릅의 특성상,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위험이 산존했고, 재해 발생 시마다 농가들은 속수무책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군은 지난해 두릅의 보험 품목 지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 두릅이 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길이 열리게 됐다. 이를 통해 농가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보험 상품 출시를 앞두고 지난 1일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설명회에서는 보험 가입 조건과 보상 항목, 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농가들이 기후



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도입된 두릅 재해보험은 태풍, 폭우, 폭설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며, 보험료의 80%는 국가와 순창군이 부담하고 농가는 나머지 20%만 지불하면 된다. 이로 인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재해 시 신속한 복구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두릅은 순창군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다. 이번 재해보험 도입을 통해 농가가 재해보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두릅 재배 환경 개선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릅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역 농협에서 신청 가능하며, 군은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상세한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원광대 의과대 곤충산업 활성화 논의

남원시와 원광대학교 의과대는 지난 6일 원광대학교에서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식용 곤충 실용화 산학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곤충산업 활성화 및 발전 방향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로서 남원시청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행정 관계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죽이아기와 한미안행 등 기업체 등 산학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남원시 곤충산업 거점 단지 조성 사업계획 설명, 곤충 생산기공 프로토타입 플랫폼 구축 방안, 갈색거저리 식품 활용 방안, 곤충산업 현황 발표 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곤충산업 거점 단지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건축을 시행했던 기업체의 다양한 경험담과 경북 예천, 강원도 춘천, 전북 남원 거점 단지 3개소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 및 공조하는 협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등재 기원 한뜻

순창군-대상-서경덕 교수 3자 간 업무협약 체결



순창군이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등재를 기원하며, 대상(주)과 서경덕 교수를 함께 순창군 전통 장 문화 홍보를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상(주)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열기남 순창 부군수, 박은영 대상(주) 식품BU장,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등재를 응원하고, 전통 장 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순창 지역 고추장 장인들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상(주)는 한국 전통

장 담그기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순창 지역 고추장 장인 4인의 이야기를 담은 헌정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을 지켜나가는 순창 지역 장인들의 열정과 순창 고추장의 정통성, 그리고 명인들의 자부심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외로, 순창군은 대상(주)의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한국홍보전문가인 서경덕 교수는 대상(주)와 협력하여 순창 지역과 순창 고추장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 드론 영상콘텐츠 공모 작품 접수 마감

남원시가 지리산을 자유 주제로 시행한 '2024 남원시 드론 영상콘텐츠 공모전' 작품 접수를 마감하고,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국민참여심사 이벤트' 결과를 반영해 최종작품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학생,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별, 직종별로 다양성 있는 참여가 돋보였으며, 특히 올해는 온라인 국민 참여 심사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만큼 영상공모전의 공정성과 전문성까지 확보될 예정이다.

이에 남원시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작품은 전문 위원 평가 접수, 온라인 국민 참여 접수 등을 합산하여 최우수상(2), 우수상(4), 장려상(9) 등 총 15개 작품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참여심사 이벤트'는 오는 22일까지 진행, 참여 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우수 작품을 선정, 해당 내용을 네이버폼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남원시TV)과 인스타그램(@goodnamw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상상은 료품(100초 이상) 부문 최우



수상은 상금 200만원과 상장, 솜품(30~60초 미만) 부문 최우수상은 상금 100만원과 상장이 수여되는 등 상훈에 따라 총 95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을 차등 수여하고, 수상작은 남원시 공식 유튜브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시 대표 홍보 매체에 시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남원시 조은영 홍보팀장은 "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시정 홍보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매년 영상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의 영상콘텐츠를 발굴하고 시정 홍보 방향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 공식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11월 소통 간담회

남원시는 11월에도 시민과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감동 민생행정 실현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먼저 11일과 12일은 광치산업단지과 노암산업단지를 방문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고 위해 40개의 입주기업 대표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14일에는 시청 강당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의사항 청취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 접수된 건의 사항들을 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해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건의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해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국 문화재청 제공)